

# 완도군-보해양조, 2021해조류박람회 성공 지원 MOU 체결



### 소주 150만 병에 박람회 스티커 총 3회 부착 24일간 완도소주 5만병 출시해 지역 공급기로

(재)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신우철)는 지난 17일 보해양조(주)와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하여 오명호 전남영업 본부장, 최경선 목포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보해

양조(주)에서는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사전 홍보를 위해 소주병 150만 병에 박람회 홍보 스티커를 8월과 12월, 내년 3월, 총 3회에 걸쳐 부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4일간의 박람회 행사 기간 중 완도 소주 5만 병을 출시하여 완도 지역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벤트 진행과 보해양조 전국 지점에 박람회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군에서는 박람회 기간 중 보해양조 홍보 부스 운영 지원과 임직원 박람회 관람 시 할인권 제공, 보해양조 소주 사용을 권장하기로 협약하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완도군에서 박람회와 축제가 개최될 때마다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세 번째 열리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관람객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박람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24일간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군은 해조류를 소재로 바이오, 의약, 뷰티, 에너지 등 다양한 4차 산업을 융·복합시켜 해조류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박람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 강진군,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첫 보급 시작

고령 및 여성농업인들의 운반·이동 등 불편 줄여

강진군은 올해 처음으로 2억9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8월부터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38대를 공급한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는 기름 대신 전기모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유류비용이 절감돼 유지비가 일반동력차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저소음·저진동·무매연으로 운반작업이 가능하며 미세먼지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 농촌의 주요 운반 수단인 경운기는 운전 및 조작에 어려움이 많아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는 여성과 고령자들의 안전성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급은 농가의 구입부담을 완화하고자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대 당 550만 원 기준으로 도비 9% 군비 31% 농협이 30%를 지원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운반차를 구입한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작동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군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외에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406대, 소형농기계 246대, 중대형농기계 99대, 농업용 지게차 6대, 농업용 드론 2대를 공급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흥문화원, 향토 역사 발간 자료 온라인 공유

문림고을·문림의향·고죽고을·정남진 등



장흥문화원(원장 고영천)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비대면 소통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장흥문화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중에서 문림고을, 문림의향, 고죽고을, 정남진 등 ‘장흥’에 관하여 연구하는 이들을 위해 활용도가 높은 소장하고 있는 장흥문화원 자료 등을 데이터

베이스하고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문화원 자료는 목록화 되어 있으며 장서 16,358권(도서), 음반 550개, 비디오 자료 240편 등 기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장흥문화원은 코로나 19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고문집 국역 사업’ ‘문림의향 장흥역사지원 발굴조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장흥문화원 예술인들을 초청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경력증명 등록’ 대행서비스를 진행하였다. 고영천 장흥문화원장은 “자료들은 의미있고 소중한 지역의 자산이며,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이들 자료를 잘 보존하고 활용도를 높여 연구하는 이들 뿐 아니라 군민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영일 기자

## 진도군 ‘미니 단호박’ 수확 한창

베타카로틴 성분 높아 피로회복·다이어트 효과 등

간편 간식과 웰빙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진도 미니 단호박 수확이 한창이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미니 단호박 수확 시기를 맞아 친환경 경농법으로 재배한 단호박을 수확·선별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크기별로 분류된 이들 미니 단호박은 수분 조절을 통해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

장실로 옮겨져 10일 가량의 숙성을 거쳐 세척·포장을 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특히 진도 미니 단호박은 베타카로틴 성분의 함유가 높아 피부 건강 유지를 비롯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부기를 제거하는 건강한 식재료로 활용된다. 청정 진도에서 생산되는 미니 단호박은 타 지역보다 많은 일조

량과 함께 해풍을 맞고 자라 더 알차고 11~15brix의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또 섬유질이 풍부해 적은 양으로 높은 포만감을 채워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꼽힌다. 진도군은 83개 농가가 53ha에서 미니 단호박을 600t 생산, 30여 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진도군 미니 단호박 재배 농가는 “진도 미니 단호박은 당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와 이윳식,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강진군, 전세버스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강진군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1인당 5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7월 10일 기준 관내에 영업소를 둔

전세버스 운송업체의 운수종사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으로 등록된 자로, 지원 대상자는 오는 7월 22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강진군청 안전재단과 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속하게 서류심사를 마

친 뒤 7월 말 지원이 확정된 운수종사자들의 계좌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승욱 군수는 “이번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